

■ 특집 ■

##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

신 영 현

### I. 머리말

(한국)다문화소설이란, “한국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탈북자, 혼혈인, 유학생, 전문직업인 등 정주민과 대응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을 서사 공간으로 설정하여 재현하거나, 한국외의 공간에서 이주자로서 살아가는 한국인을 형상화한 서사문학”<sup>1)</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소설 혹은 다문화 문학은 2004년~2005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sup>2)</sup> 이 소설들은 대개 한국 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이주민의 삶을 차별과 배제라는 관점으로 전달한다.<sup>3)</sup> 이 시기에 다문화 소설이 많이 발표된 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2004년)과 미등록이주자 강제추방에 절망한 이주노동자 14명의 자살 사건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sup>4)</sup>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의 다문화문학을 윤영옥은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 1) 최남건, 『2000년대 한국 다문화소설 연구-이주민 재현 양상과 문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4), 36쪽.
- 2) 이 시기에 발표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박병신의 『나마스테』(2005), 김재영의 『코끼리』(2005), 『아홉 개의 푸른 쓰나』(2005), 전성태의 『여자 이발사』(2005),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2005), 손흥규의 『이무기 사냥꾼』(2005), 공선옥의 『유랑가족』(2005), 『가리봉 연가』(2005), 김중미의 『거대한 뿌리』(2006), 이해경의 『물 한 모금』(2006) 등이 있다. 김려령의 『완득이』(2008), 『이슬람 정육점』(2010)을 포함하면 2005년에서 2010년이라는 이 시기는 가히 한국 다문화문학의 르네상스기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 3) 박산향, 『『이슬람 정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7권 3호(2016), 38쪽.
- 4) 임지연, 『공감 개념의 확장과 다문화적 공감서사-『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7권(2018), 226쪽.

다문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이고, 후자는 다문화를 다루는 작품의 구조나 서사적 재현 양상 등에 주목하는 연구이다.<sup>5)</sup> 강영훈은 다문화소설에 대한 연구 경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타자가 겪는 폭력과 억압, 소외 현상을 폭로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의”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주의가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문화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는” 연구이다.<sup>6)</sup>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이를 통한 현실 개선에 방점을 둔다면, 후자는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근거해서 이의 극복 및 지양을 시도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위 분류에 따르자면,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sup>7)</sup>이 보이는 문학적 성취를 분석하는 본 논문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 시선에 바탕을 둔 미시적 연구에 해당한다. 출간 이래로 『이슬람 정육점』은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작품은 김재홍의 『코끼리』, 김여령의 『완득이』와 함께 대표적인 다문화성장소설로 손꼽힌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본 작품에 등장하는 터키인 하산과 고아 소년으로 이루어지는 대안 가족을 통한 가족 개념의 재구성 내지 확대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본 작품이 “가족과 국민의 개념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다문화집단과의 상호 인정과 교류, 그리고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윤영옥의 연구<sup>8)</sup>가 이에 속한다. 가족 (및 국민) 개념의 재규정에 주목하는 연구는 본 작품 관련 연구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sup>9)</sup> 둘째는 이와 관련되면서도 약

- 
- 5) 윤영옥, 「21세기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권 3호(2012), 370쪽.
  - 6) 강영훈, 「보호와 억압, 다문화주의의 두 얼굴-다문화소설에 나타난 민족공동체의 역할」, 『현대문학이론연구』, 62권(2015), 36-37쪽.
  - 7) 손흥규, 『이슬람 정육점』(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이후 본문 인용 시에는 괄호 속에 페이지 수만 적기로 한다.
  - 8) 윤영옥, 「21세기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375쪽.
  - 9) 본 작품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전통적인 것을 완전히 탈피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반면, ‘이웃’의 개념은 오히려 전통 사회의 그것으로 회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이남정의 연구나, “외부의 차별적 시선과 디아스포라적 아픔은 오히려 이[다문화인]들에게 동질감을 갖게 함으로써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는 가족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보는 박산향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여령의 『완득이』와 손흥규의 『이슬람 정육점』」

간 초점을 달리하는 연구로, 다문화 주인공의 정체성 찾기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인정(방식)의 문제, 주체/타자 사이의 윤리의 문제”에 주목한다.<sup>10)</sup>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주인공의 성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sup>11)</sup> 세 번째로는 다문화주의담론 혹은 이론의 측면에서 『이슬람 정육점』의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는데, “순수하고 균질적인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환상이 폭력을 통해 성취되고 그 폭력에 따른 공포·고통이 개인화되면서 지속되는 데 주목”하는 조명기의 연구<sup>12)</sup>가 대표적 예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본 작품에 접근하는 다양한 미시적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공감을 통한 치유서사’라는 모티프로 『이슬람 정육점』이 “이주자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 치유자로 서술하며, 다양한 공감을 통한 치유 서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다문화 소설”이라고 보는 임지연의 연구<sup>13)</sup>가 이에 해당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슬람 정육점』을 관류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작품이 다문화사회로 이미 접어든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작품이 지닌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1권(2021), 162쪽과 박산향, 「『이슬람 정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44쪽 참조.

- 10)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한민족어문학』, 64권(2013).
- 11) 이미림은 십대 주인공이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한국사회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조속하고 사려 깊은 상처받은 영혼으로 성장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1권(2012), 396쪽.
- 12) 조명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가·자본의 폭력과 윤리 효과 그리고 로컬의 위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9권(2014), 329쪽.
- 13) 임지연, 「공감 개념의 확장 다문화적 공감서사-『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7권(2018), 247쪽. 이 외에도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총체적 인식론, 관계적 세계관, 탈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초 하는 생태학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광경숙의 연구나,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양상”을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엄숙희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광경숙, 「『이슬람 정육점』을 통해 본 생태학적 다문화사회」, 『현대문학이론연구』, 58권(2014), 30쪽. 엄숙희,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폭력 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65권(2020), 399쪽.

## 2.1 『이슬람 정육점』의 세 가지 키워드

『이슬람 정육점』의 서사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화자이자 주인공인 고아 소년이 하산이라는 터키 출신 이방인에게 입양되어 “미로처럼 골목이 갈라지고 이어진 낡고 후락한 산동네”(18)에 살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의 소소한 일상을 주로 들려주는 구도이다.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은 그가 몸담은 후락한 동네만큼이나 중심부에서 밀려난 온갖 종류의 주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눌러앉게 된 터키인 하산과 그리스인 야모스가 인종적 소수자라면, 부모 없이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입양된 주인공 소년과 그의 친구인 연탄장수 아들 김유정은 계급적 소수자라 할 수 있다. 한편 말더듬이라는 언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유정과 한국전쟁 참전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라는 말을 달고 사는, 주인공 또래인 맹랑한 녀석은 신체적 정신적 소수자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가장 번듯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 전도사조차 주기도문이 기억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결핍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소설은 이런 터무니없는 조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위트 넘치게 그린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아 소년은 상처투성이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그런 흉터를 남긴 세상을 ‘입양’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비슷한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입양한 하산 아저씨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상호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 2.1.1. 흉터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에피소드 위주로 흘러가는 구조 상 다소 산만해 보일 수도 있는 본 작품의 서사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세 가지 모티프가 있는데, 그것은 흉터와 상처, 언어와 공감, 얼굴이다. 이 중 흉터는 본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사의 통일성을 담보해주는 모티프이자 주제이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소년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고아원으로 전전한다. 자신의 기원을 밝힐 단서라곤 소년의 몸에 남아

있는 무수한 흉터들뿐이다. 하지만 그 흉터들 대부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막막하기만 하다(15). 결국 과거를 떠올리려 해도 소년의 기억은 고아원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곳이 그의 세계의 전부였기 때문이다(16). 이런 이유로 화자는 “본능적으로 흉터에 민감”(66)한 아이였다. 틈만 나면 그는 자신의 흉터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기원을 추측해본다.

야모스 아저씨마저 찾아오지 않을 때면 나는 벌거숭이가 되어 조각각울에 온몸을 비취 보았다. 기억할 수 없는 흉터들을 것처럼 들여다보면 무언가 떠오를 것 같았다. 흉터들이 제각각 하나의 입이 되어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오른쪽 쇄골의 움푹 팬 흉터는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25)

결국 『이슬람 정육점』은 자신의 몸에 나타난 흉터의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면서 그 흉터가 상징하는 상처 입은 자신을 수용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몸에 난 수많은 흉터 중에서도 쇄골에 움푹 팬 흉터야말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임을 암시한다. 이는 본 작품이 다문화소설이면서도 보편성을 획득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그런데 흉터는 고아 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흉터 혹은 상처를 지닌 자들이다. 소설에서 가장 유쾌하면서도 긍정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그리스인 야모스 아저씨조차 자신의 상처와 싸우는 인물이다. 야모스는 한국군 참전 용사로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에 참전했다가 전후 한국에 눌러 앉은 늙다리 백수이다. 그의 말은 반은 농담이고 반은 허풍이다. 그는 강원도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터널을 뚫다가 동면 상태의 공룡을 발견하고는 토치로 녹인 후 불에 구워먹었다거나, 군대 작전 도중 인어를 만나서 물속의 황금궁전에 끌려가서 술잔 부럽지 않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곳을 탈출해서 탈영병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수백 미터 절벽을 뛰어내려 탈출했노라고 허풍을 친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갇혀 있는 새를 발견했다는 말이다.

“그 빈집에 말이다. 새가 갇혀 있단다. 쇠사슬로 날개를 결박당한 채 어디론가 새어 들어온 빗물을 마시며 산단다. 그 새는 강철로 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지. 두 눈은 부드럽고도 강렬하지. 깃털하나 빠지지 않고 가슴팍이 두꺼워. 그 부리로 우라노스의 심장

도 단번에 꺼낼 수 있고, 발톱으로 황소를 움켜쥐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새를 풀어줄 수가 없구나. 이제 더는 그 새가 날아다닐 하늘이 없단다. 하늘마저 인간이 점령한 지 오래니까.” (74-75)

물론 이는 야모스가 지어낸 말이다. 빈 집에 갇힌 새 이야기는 위에 언급한 터널 속에서 동면 상태로 발견된 공룡이나 바다 속의 황금궁전 이야기들만큼이나 황당하지만 ‘간혀있음’이라는 모티프로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새의 날개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이다. 이것이 바로 야모스의 흉터인 것이다.

7장 후반부는 이 쇠사슬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를 통해 야모스가 도망치듯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설명된다. 2차 대전 후 벌어진 그리스 내전 중에 정부군 소속의 젊은 조종사 야모스는 정찰 비행 중에 자신을 공격한 반군 무리에게 기총 소사를 가한다. 희생자 중 한 사람의 소지품을 통해 자신이 사살한 민간인들이 바로 자신의 작은 아버지 부부와 사촌들임을 뒤늦게 발견한다. 내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가지만,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온 야모스는 때 마침 발발한 한국 전쟁에 파견된 그리스 군에 자원입대한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모스는 “내가 저 지른 최악의 과오는 전쟁을 도피처로 삼은 거란다”(103)라고 고백한다.

마지막 장에서 야모스는 빈 방에 갇혔던 새를 풀어줬다고 말한다.

“무서웠지. 손이 달달달 떨렸으니까. 하지만 그 새가 이제 막 날갯짓을 배운 어린 새처럼 힘겹게, 하지만, 결연하게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를 때는 가슴이 뿌듯했다.” (230-231)

화자는 이를 “야모스 아저씨, 그가 풀어준 건 새가 아니라 구식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누비던 청년 야모스였다”(231)고 풀이한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그려지는 흉터의 소유자는 소년의 옆집에 이사 온 대머리 아저씨이다. 이사 온 첫 새벽부터 목청이 찢어져라 군가를 불러 대다가도 낮이면 하릴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온순한 백수이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시국 집회에 적극 참여하지만, “신체가 멀쩡한 걸 보면 상이군인일 리는 없”(82)고 “가슴팍에 매달 무공훈장 하나 없는 걸 보면 용감한 군인도 아니었던 것 같”(82)은 늙은 홀애비이다. 평상시 그는 충남 식당 앞의 평상에서 즐다가 몸을 부르르 떨곤 하는데 이를 보면 공포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를 공포에 떨게 하는 상처는 맹랑한 녀석에 의해

밝혀진다.

“대머리 아저씨 말야. 기억을 못한다. 전쟁이 일어났던 날부터 휴전이 성립되었던 날까지 삼 년간의 기억이 지워졌대. 기록에는 참호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된 걸로 나와 있대. 그런 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해.” (142)

결국 대머리는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기 위해, 한국 전쟁 관련 모든 기록들을 공부하고 외우지만, 끝내 자신이 참전했던 그 전투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지 않았다(142). 맹랑한 녀석을 대동하고 참가했던 집회에서 참전용사들로부터 ‘공갈군인’이라는 모욕과 함께 뺨을 얻어맞은 대머리는 녀이 나간 상태로 동네에 복귀한다.

이 일 후에 맹랑한 녀석은 대머리 아저씨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보지만, 결국 그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 대머리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을 태워 버린다.

방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맹랑한 녀석은 더 냉정해졌다. 그는 대머리 아저씨의 군복과 군화 국방색 속옷과 양말까지 한테 모았다. 국방색 허리띠와 은빛 버클 각 잡힌 전투모와 낡은 견장까지. 우리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상 옆에 앉아서 간단하게 목념을 한 뒤 신문지를 불쏘시게 삼아 대머리 아저씨의 물건들을 태웠다. 그것들은 마치 유품 같았고 우리는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가 된 것 같았다. 한 시대가 태워졌다. 한 사람의 과거가 타올랐다. 검고 악취 나는 연기를 피워 올리면서. (210)

맹랑한 녀석은 “이렇게라도 해서 대머리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보상 따위 받지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보상을 바라고 한건 아니었잖아”(210)라고 자신의 동기를 설명한다. 녀석의 바람대로 “그날 밤 대머리 아저씨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210).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자신의 과거와의 결별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슬람 정육점』에서 흉터(혹은 상처)는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단초(화자)나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를 의미하는 상징(야모스와 대머리)에 그치지 않고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작품의 첫 장에서 하산의 손에 이끌려 온 화자를 씻겨 주면서 안나 아주머리는 “자신의 몸에도 흉터가 있다”(15)고 말한다. 이에 대해 텍스트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작품 전후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그녀의 몸에 남겨진 흉터는 헤어진 남편의 폭력의 증거이거나 자녀를 출산하면서 얻게 된 흉터라고 볼 수 있다. 10장에서 야모스를 통해 안나 아주머니에게 아이가 있으며,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를 들은 화자는 “나는 안나 아주머니가 원하면 기꺼이 아들이 되어줄 수 있”(162)으며, “내 몸의 흉터야말로 내가 안나 아주머니의 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162)라고 읊조린다. 흉터는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을 가족으로, 공동체로 엮어주는 흉터의 기능은 비단 안나 아주머니와 화자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야모스 아저씨의 왼쪽 턱에는 새끼손가락 굵기의 흉터가 있었”(66)으며, “폭력에 의한 것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혹은 선천적인 것이든 모든 흉터는 언어처럼 서로 관계를 맺는다”(66)고 화자는 믿는다. 이런 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흉터를 통한 하산과 화자의 결속 내지는 연대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의 흉터가 닮았다는 점이다. 이는 야모스가 하는 다음의 대사를 통해 입증된다.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그 흉터 말이다. 왜 낮이 익은가 했더니 하산에게도 그런 흉터가 있었다.”(227)

결국 이 흉터는 총상의 흔적이었으며, 텍스트는 주인공 화자가 하산이 전투 중에 사살한 적군 부부의 아이임을 암시한다.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거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는 내게 총을 쏘았던 사람을 떠올리며 애썼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자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총을 쏘았으리란 걸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네가 복수하기도 전에 세월이 그를 용서해버릴 거다. 세월은 잔인한 구석이 있거든.”(234)

이튿날 혼수상태에서 잠깐 깨어난 하산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다오”(235)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해 화자는 “고마워요, 아버지.”(235)라고 대답한다. 흉터를 통해 부모를 죽인 원수지간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재탄생한다. 이 장면은 이방인인 하산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고아 소년을 입양하게 된 원인이 드러나면서 두 주인공의 관계가 동거인에서 진정한 부자 관계로 승화된다는 점에서 소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일 가능성이 높은 하산을 아버지로



수용하는 소년의 선택이 다소 급작스럽고 작위적인 설정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년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진실은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통의 기억과 상처의 공유가 진정한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사실 본 작품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쌀집 아저씨와 그의 딸의 관계가 사랑보다는 갈등 관계에 가깝다는 점이나 안나 아주머니와 그녀가 시댁에 남겨 둔 자식들의 관계는 이웃사촌보다 더 먼 관계이다. 또한 소년에게는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할만한 아무런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 더구나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전쟁터에서 설혹 하산이 기억도 나지 않는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를 원수로 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전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년에게도 고민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줄임표이다. 이를 통해 과연 하산의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그 말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하산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무런 기억도 없는 부모를 전장에서 죽인 원수라는 이유로 자신을 거둬준 하산을 미워하는 게 맞는지 등, 여러 생각이 소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저자는 말줄임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만이다. 찰나의 고민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내뱉는 소년의 말은 이미 그가 하산을 용서했거나 하산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이미 부모의 원수를 만난 셈인데, 이를 미래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가 부모의 원수라는 현실(적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주인공 소년이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흙터가 있는 하산과 안나와 같은 이웃과 맺어지는 것”이며, “의붓아버지의 피가 흐른다고 느낄 정도로 이웃들과 가족애가 형성되는 대안가족으로서의 다문화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이미림의 지적은 적확하다.<sup>14)</sup>

### 2.1.2. 언어

원심적으로 뻗어나가는 『이슬람 정육점』의 서사의 중심을 잡아주는 두 번째 모티프는 언어이고, 이는 유정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 유정은 화자가 입양된 동네에 사는 또래 사내아이로서 연탄장수 집 아들이다. 유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점이다. 주인공 소년을 만난 유정이 처음 내뱉은 말에서부터 이런 특징은 잘

14)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1쪽.

드러난다. “나, 난 유, 유정이야. 김유정.”(28) 이렇게 보면 본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주변인들이면서 스피박(Gayatri Spivak)이 말하는 서발턴(하위주체)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에 눌러앉은 외국인들인 하산과 야모스는 인종적 핸디캡을 가진 서발턴들이고, 주인공 소년의 경우 외국인에게 입양된 고아 소년이라는 핸디캡이 있다면, 유정은 언어적 핸디캡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유정의 경우 말더듬이라는 핸디캡은 오히려 그가 지닌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화자는 이에 대해 “유정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능력을 지녔다.”(29)는 말로 이를 요약한다. 또한 화자는 유정을 통해 “입을 꼭 다문 세계도 사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30) 배운다. 이는 유정이 동물의 언어를 알아듣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유정이 지닌 언어적 교감 능력이 ‘실제로’ 동물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해 주는 것은 아닐 터이다. 중요한 점은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정의 공감 능력이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유정이 보통 사람들보다 언어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화자는 유정이 말을 더듬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유정은 다만 두려울 뿐이었다.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걸 언어로 환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멸했다. 언어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경멸했다. (116)

사실 언어는 불완전한 매개체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단 말을 내뱉은 사람(화자)의 원래 의도했던 것(meaning)과 그 말을 들은 청자가 받아들이는 의미(significance)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황무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불모성에 대해 노래한 엘리엇(T. S. Eliot)의 시 “프루프록의 연가”(The Lovesong of J. Alfred Prufrock)에서는 스쳐가는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는 작중 인물이 창가에 서서 “그건 결코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야”(That’s not what I meant, at all)라고 노래한다. 언어가 인간과 인간의 사유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경우 언어가 실재를 대신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라캉(Jacque Lacan)은 이를 “문자가 (실재를) 살해한다”는 명제로 요약한다. 우리가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지칭하는 순간 실제의 사과는 사라지고,

‘사과’라는 기표에 의해 대체되어 버린다. 이는 다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손자가 엄마의 부재를 제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포트-다’ 놀이와 연결된다. 엄마가 외출하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실패를 밀어내며 “fort”(앞으로)라고 외침으로써 엄마의 부재를 스스로 확인하고 감내하다가 바로 다음 순간 실패를 다시 당기며 “da”(여기)라고 외치면서 엄마를 다시 만나도록 스스로 조종한다. 이처럼 실패를 감았다 되풀이를 반복하면서 외치는 ‘앞으로’와 ‘여기’의 순환을 통해서 아이는 어머니의 부재라는 외상적 현실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한다. 이렇게 보면 언어란 본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핍(실재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대전제는 표상(이미지)과 분리된 정동이 무의식에 억압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이 분석과정(대화)을 통해서 적절한 표상과 재결합되면 사라진다는 명제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환자인 안나 오(Anna O)가 프로이트의 치료방법을 ‘말하기 치료’(talking cure)라고 부른 것은 대단한 통찰이다.

그러나 기표(문자)에 의한 사물(실재)의 대체는 늘 불완전하기 마련이어서, 기표의 한계 속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차원의 실재가 기표와 기표 사이의 틈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즉, 기표의 유희 사이로 미끄러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커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의 불완전성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을 지녔던 소설 속 주인공으로는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내 누워 죽어갈 때』(*As I Lay Dying*)의 여주인공인 애디(Addie Bundren)를 들 수 있다. 소설 속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자인 애디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질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말(단어)들은 빠르고 무해하게, 한 가닥의 가는 선이 되어 똑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지만, 행동은 땅에 찰싹 붙어서 끔찍하게 땅을 따라 움직인다고 난 생각하곤 했었다. 얼마 후면 두 개의 선은 한 사람이 두 다리를 한쪽씩 걸치기에는 너무도 간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죄와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란 죄짓지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 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 말들을 잊어버릴 때까지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것 대신에 차지하는 소리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138)

애디의 항변은 라캉과 프로이트의 명제를 풀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다시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유정의 신념과 연결된다. 어떤 동물의 말이 가장 알아듣기 어렵냐는 화자의 물음에 “사람”(32)이라고 답하는 유정의 대답은 위트가 있으면서도 철학적이다. 사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동물의 언어에 비해 인간의 언어는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심지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외연, denotation)와 심층적인 의미(함축, connotation)가 배치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주인공 소년이 보기에 유정이 말을 더듬는 이유는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116)하기 때문이며 “모든 걸 언어로 환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멸”(116)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정이 말을 더듬는 것은 함부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지에 대해서 유정이 남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이는 “하나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말이 되기도 하고 주문이 되기도 한다”(222)는 유정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이를 보면 유정이 “언어의 정확성을 불신하는 자라기보다는 언어의 부정확성에 매료된 자에 가까웠다”(117)는 화자의 평가는 적확하다. 유정을 보면서 고아 소년은 “입을 꼭 다문 세계도 사실은 끊임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30)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동물과 교감하는 유정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랬던 유정이 “어머니가 사라진 뒤 말을 더듬지 않”(206)게 된다. 화자는 이를 “이 낱말을 더듬는다는 생각조차 괴로웠”(206)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앞서 소개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다시 소환하자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어머니’라는 말을 잘못 발음하거나 더듬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떠난 지금 어머니의 부재를 극복하면서 존재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호명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의 소풍을 마치고 트럭에서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205)라고 깽뚝이 인사하는 유정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어머니’라는 단어만 더듬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변화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더 안쓰럽게 다가온다. 화자는 이를 보면서 “우리가 말을 더듬지 않는 이유는 ... 사실은 더 큰 상처로 고통받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206) 깨닫게 된다. 안나 역시 유정을 안아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

거라. 돌아오실 거야. 그럼. 돌아오시고말고”(205)라고 위로한다. 즉, 유정은 말을 더듬을 수 있는 여유와 이에서 기인하는 풍성한 언어 구사력을 일정 부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정이 말더듬이 때 지녔던 동물과의 교감 능력이나 언어(의 불완전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살인을 막지도 못했으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역시 막지 못했”(203)으면서 그저 말로만 이를 명령하는 “『성경』 이야말로 인간이 고안한 것들 가운데 최악의 발명품이에요”(203)라고 항변하는 유정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는 작가가 되려는 유정이 앞으로 써내려 갈 작품의 장르가 바뀔 것임을 암시한다.

본 작품에는 유정보다 더 심한 언어 장애인 이 등장하는데, 그는 병어리 신부이다. 신부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정보다 더 심한 장애인이고, 소수자이며, 서발틴이다. 그리고 보면 본 작품에는 표준적이지 않은 언어 구사자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비속어를 달고 사는 쌀집 아저씨, 모든 대화를 “어차피 죽을 건데 뭐”라는 말로 도배하는 맹랑한 녀석에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코끼리가 지나가지”라는 말만 반복하는 열쇠 장수 아저씨,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풍으로 이어지는 야모스 아저씨가 있다. 이미림은 이들 모두를 피진어<sup>15)</sup>의 구사자라고 보며 이들이 권력자의 언어를 전복하고 해체한다고 주장한다.

욕설, 말더듬, 침묵, 피진어, 반복어 등의 비표상적이고 미분화된 마을사람의 소통방식은 탈영토화된 언어이자 타자의 언어로 고정된 권력관계의 기능을 붕괴시킨다. 이주자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이산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며 타자로 낙인찍힌다. 경계언어로서의 피진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의 한국어는 피진과 같은 경계언어이다.<sup>16)</sup>

이런 맥락에서 “소통이 불가능한 타자의 언어, 경계언어는 근대자본주의 사회가 조장한 중심 권력 언어를 전복하고 해체함으로써 다름과 차이를

15) 피진(Pidgins)의 현상은 국제교류가 이루어져 국경을 넘어 선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형성된 경계언어현상으로 원래 피진이라는 말은 ‘Business’에 대한 중국어의 발음으로, 피진어 자체가 교역과 접촉, 국제교류, 식민지 건설에서 나타나는 언어임을 말해준다. 신승철, 「경계언어와 특이성 생산」, 『시대와 철학』, 22권 2호(2011), 199쪽.

16)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3쪽.

포용하고 인정해야한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정치적이다”는 이미림의 지적<sup>17)</sup>은 설득력이 있다.

### 2.1.3. 얼굴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이들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원심적인 묘사를 묶어주는 마지막 모티프는 바로 얼굴이다. 이는 특히 주인공 소년의 보물 1호인 스크랩북을 통해 잘 묘사된다. 너무도 급작스럽게 고아원을 찾아와서 자신을 데려가는 낯선 외국인 하산을 따라 나서면서 화자가 유일하게 챙긴 물건이 바로 스크랩북이다. 그런데 소년에게 이 스크랩북은 단순히 기억하고 싶은 사건에 대한 신문 기록 모음집에 그치지 않는다. 소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얼굴이다. 이에 대해 소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표정이 하나의 표정으로 수렴된 얼굴을 만나기를 고대했는지도 모른다”(208)고 고백한다.

그런데 소년의 호기심은 점점 한국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해 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 편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발견하고 이 깨달음을 주위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판판이 되었다. ...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218-219)

그리고 소년은 자신의 작업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웃들에게 한국인의 얼굴을 맞춰보라고 해 보지만, 대부분 맞추지 못한다. 소년은 이웃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심지어 아프리카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밝힌다.

나는 스크랩북을 펼치고 떡방이에게 한 얼굴을 가리키며 국적을 물었다. 그 얼굴은 까만 피부와 도드라진 광대뼈, 뭉툭한 들창코와

---

17) 이미림, 같은 논문, 507쪽.

두꺼운 입술을 지녔다. 떡방이는 피식 웃더니 아프리카인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 나는 이 얼굴의 주인이 순종 한국인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다. ... 떡방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으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근데 이 녀석 돈깨나 있는 집안인가 보군. 기름기가 왁왁 흐르잖아. (218)

이런 실험 끝에 소년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만으로 그가 어떤 종족인지 민족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인종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그건 우리가 곧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는 능력만을 지녔다는 뜻이기도 했다”(222)고 결론짓는다. 또한 인종적인 구분은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222)일 뿐임을 확인한다.

주인공 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는 이러한 통찰이야말로 다문화 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이 지닌 가장 중요한 성취이다. 사실 얼굴 혹은 피부색이야말로 우리가 타자를 평가하는 가장 우선적인 통로이자 잣대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백인 선호 사상과 이와 짝을 이루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역시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선주는 “피부색이 일반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희면 우선적인 호감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짙거나 검으면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계층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버리고, 막연한 반감과 깔봄으로 대하는 일종의 피부 색깔에 대한 사대주의 경향”이 한국인에게 있다고 지적한다.<sup>18)</sup> 계성 역시 “한국 안의 인종차별, 백인 선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성찰하며 반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sup>19)</sup>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로는 2009년 성공회대 교환교수로 한국에 체류하던 인도인 보노깃 후세인 교수가 버스에서 “아랍인은 테러리스트다”,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말과 함께 봉변을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다.<sup>20)</sup>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가해자인 한국인에게는 존댓말로 응대하고 피해자인 후세인 교수에게는 반말로 일관하면서 가해자가 귀가한 지 한참이 지난 새벽 시간까지 그를 조사하였다.<sup>21)</sup> 얼굴이나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하고

18)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지적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권 2호(2014), 140쪽.

19) 계성, 「성장소설로 본 한국의 다문화 공간-『중국인 거리』, 『코끼리』, 『완득이』를 중심으로」, 『중국어언문화연구』, 11권(2016), 197쪽.

20) 가해자인 한국인 박 모씨는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내국인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8179> (검색일: 2022.3.1).

이에 근거해서 타자를 숭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가 전혀 근거 없는 후천적 학습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소년의 인식은 인간이 본래 혼혈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안나 아주머니의 잠든 얼굴은 기이했다. 영락없이 전형적인 한국 여인으로 여겨지다가도 중국계나 일본계 혹은 베트남계나 인도네시아계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히스패닉계라 해도 좋았고 플라토 혹은 삼보라 해도 좋았다. 종내는 안나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가 모호해졌고 인간이란 이처럼 애초에 혼혈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산 아저씨와 야모스 아저씨도 그랬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한국에서 보낸 탓에 그들의 완고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길들여졌다 누군가는 그들이 이방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159-160)

한국인의 얼굴과 외국인의 얼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화자가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차이가 까닭 없는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소년은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그들이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콧수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51) 유일하게 하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뿐이었으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체들은 하산 아저씨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51)

여기서 화자는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동시에 이런 비판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일 뿐이라고 봄으로써 이의 개선 혹은 극복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런 잘못된 교육에 노출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하산을 보고 웃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를

---

21) 사건이 있는 지 한 달 후에 검사 앞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사과를 했지만 후세인 교수는 고소를 취하지 않았으며, 부천지정은 가해자를 모욕혐의로 약식기소 하였다. 본인이 고소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그러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라고 대답했다.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0910141648131> (검색일: 2022.5.10).



통해 저자는 차이를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어떤 다문화주의 이론가보다 더 강력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의 해결이 단순히 차이를 추상적으로 예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는 없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화자는 “차이”에 대한 근거 없는 추켜세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레 생기는 불쾌감과 공포를 어쩔 수 없다는 사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행복했던 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한다.” (51)

사실 ‘차이’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핵심적인 이슈이다.<sup>22)</sup>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문화주의의 양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공동체주의자인 테일러(Charles Taylor)는 차이에 대한 “인정의 거부가 억압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에게, 즉 자신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반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인 킴리카는 자율성에 대한 주류 자유주의의 강조는 다문화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강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sup>24)</sup>

---

22)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25쪽.

23) Charles Taylor,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하누리, 2020), 55-64쪽.

24) Will Kymlicka, 장동진·황민혁·송경호·변영환 역,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울: 동명사, 2010), 75쪽. 킴리카는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최우선적인 가치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이에서 파생되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공동체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문화적 차이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세적으로 변호하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정부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내걸면서 도입한 이주자 정책의 변화는 소위 관주도 다문화주의로 수렴된다.<sup>25)</sup> “대통령 산하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 통합 지원안’은 한국 관주도형 다문화주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그런데 한국의 관주도 다문화주의는 “결혼 이민자들이나 코시안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그들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의 성격이 더 강하다.”<sup>27)</sup> 이처럼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관주도 다문화주의는 대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비판의 초점은 “여전히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에 모아진다.<sup>28)</sup>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비판의 대상이긴 한 것일까? 오히려 “이[이민자]들은 전형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전체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광범위한 전체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될 것을 원한다”는 김리카의 설명<sup>29)</sup>이 더 적합한 게 아닐까? 언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낯선 타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서 성공적으로 그 사회에 정착하는 것, 즉 그

---

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평등주의적 다문화주의자인 배리(Brian Barry)와 비교해 보면 세 진영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배리가 보기에 테일러를 위시한 공동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와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 뿐 아니라 김리카를 포함한 모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의 정책은 ‘연대의 정치’(politics of solidarity)에 반(反)하며, 광범위한 평등주의의 정책인 “재분배 정책을 훼손한다”. Barry, Brian,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P, 2001), p. 300, 325. 거칠게 말하자면, 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비해 문화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김리카는 문화적 차이가 개인의 자율성 및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테일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이 폭력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이의 정치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5)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31-32쪽.

26)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66쪽.

27) 김희정, 같은 논문, 68쪽.

28) 김희정, 같은 논문, 76쪽.

29) Kymlicka, 『다문화주의 시민권』, 20쪽.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종족 문화(ethnic culture)를 숨겨야 한다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수용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과 배치되는 양자택일의 문제일 필요는 없다. 즉, 이들은 ‘둘 중 하나’(either A or B)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다’(both A and B)를 함께 추구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욕망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문화적 차이를 추켜세우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에서 화자가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 점이다. 화자는 차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피해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추상적 구호로는 진정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화자가 보기에 많은 다문화주의자들은 종종 차이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얼굴 모티프를 통해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차이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상일 뿐이며, 설사 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슬람 정육점』이 “내 몸에는 의붓아버지의 피가 흐른다”(7)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내 몸에는 여전히 의붓아버지의 피가 흐른다”(237)로 끝나는 것은 절묘한 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2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의 기법상의 특징

『이슬람 정육점』이 다문화소설로서의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것은 주제적 측면 외에도 이를 형상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 내지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머리 아저씨의 참전 용사 흉내내기이다. 화자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대머리 아저씨는 새벽마다 목이 찢어져라 군가를 불러서 동네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다.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지만 참호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되는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게 되고 그 결과 3년 동안의 참전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물이다.(142) 즉, 참전 군인이 되 참전 용사는 아닌 것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는 온갖 전쟁의

기록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은 전투들에 대해서 실제 참전한 군인들보다 더 해박하고 실감나게 떠들 수 있게 되었다. 맹랑한 녀석과 함께 참전 용사들의 구국 집회에 참여한 대머리는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전투에 참전한 ‘척’한다. 이것은 호미 바바(Homi Bhabha)가 말하는 ‘흉내내기 혹은 모방’(mimicry)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나병철에 따르면, 모방이란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문명을 받아들여 흉내 내는 것”을 말한다.<sup>30)</sup> 바바는 식민지적 모방을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의 주체로서 개량된 인식 가능한 타자를 지향하는 열망”이라고 정의한다.<sup>31)</sup> 식민 권력은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식민자에게 자신을 닮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요구에는 제한이 있어서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를 가진 닮음을 요구한다. 그런데 바바는 여기서 피식민자의 저항 가능성을 읽어 낸다. 즉, 바바가 보기에 피지배자는 흉내내기의 양가성(차이)에 의해서 식민지적 주체를 ‘부분적’ 현존 즉 불완전한 주체로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흉내내기(mimicry)는 조롱(mockery)으로 연결된다. 이런 이유에서 “흉내내기는 닮는 것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sup>32)</sup> 박산향은 흉내내기는 “일종의 거부라고 할 수 있는 차이의 재현”이라고 설명한다.<sup>33)</sup>

식민권력과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 관계를 설명하는 바바의 용어를 대머리와 참전용사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구국의 대오를 이루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모임 참전용사들의 무리와 이에 포함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을 흉내내는 대머리 아저씨로 국한해서 보자면,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머리 아저씨는 군복과 모자, 군화 등으로 참전용사라는 정체성을 흉내내고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학습된 전투 상황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지만, 그의 흉내내기는 불완전하며, 그 결과 참전용사 중 한사람에게 뺨을 맞으며, ‘공갈군인’이라는 조롱을 당한다. 국가에 의해 호명된 참전 군인인 대머리가 동료에 의해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는 이 장면은 본 작품이 “순수하고 균질적인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환상이 폭력을 통

30) 나병철, 「역자 서문」, 『문화의 위치』(서울: 소명출판, 2012), 17쪽.

31)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서울: 소명출판, 2012), 196-97쪽.

32) Homi Bhabha, 같은 책, 198쪽.

33)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성」, 283쪽.

해 성취되고 그 폭력에 따른 공포·고통이 개인화되면서 지속되는 데 주목한다”는 조명기의 해석<sup>34)</sup>을 정당화한다. 박산향도 이에 대해 “흉내 내기는 피지배자에게 항상 결함이 있는 ‘혼성’이 되는 것”이며, “어설픈 모방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sup>35)</sup>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바바가 말하는 조롱은 식민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즉, 마치 지배자들을 흉내내지만 의도적으로 어설픈게 흉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흉내내기는 저항과 전복 행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대머리 아저씨의 참전 용사 흉내내기는 반쪽짜리일 뿐이며, 권력자(이 경우에는 참전 용사)를 향한 어떤 저항이나 전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저항은 맹랑한 녀석에 의해서 이뤄진다. 맹랑한 녀석은 대머리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게 하기 위해 그가 의지하는 군복과 모자를 몽땅 불태워 버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맹랑한 녀석은 “이렇게라도 해서 대머리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보상 따위 받지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210)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엄마 배 속에서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로 태어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전혀 없고, 세상 모든 일에 무관심하던 맹랑한 녀석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의욕적으로 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대머리 아저씨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211)는 화자의 설명은 맹랑한 녀석의 행위가 대머리 아저씨의 상처의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대머리 아저씨 외에도 흉내내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주인공 공 고아 소년이다. 주인공은 라마단 금식 기간 내내 투병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의붓아버지를 대신해서 동네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찾는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신앙하던 대상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일종의 흉내내기라고 볼 수 있다.

기도 방향을 알려주는 미흐랍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선 나는 하산 아저씨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매일 보았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식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식으로 큰 절을 했다. 부디 하산 아저씨의 신이 노하지 않기를. (236-37)

34) 조명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가·자본의 폭력과 윤리 효과 그리고 로컬의 위상」, 329쪽.

35)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성」, 281쪽.

여기서 그려지는 소년의 흥내내기는 식민권력을 전복시키고 조롱하기 위한 투쟁과 저항의 흥내내기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한 편견과 타문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체하고 낯선 타자를 나의 일부로 수용하는 한 차원 더 높은 흥내내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년이 보여주는 한국식 예배 행위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연대와 하나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이다. 이남정은 이에 대해 “어쉴픈 흥내 내기보다 한국식으로 큰절을 하는 행위는 다문화주의가 본래 의도한 화합과 공존 및 다양성의 인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152)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산향 역시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동의한다.<sup>36)</sup>

다문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슬람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장치는 인물형상화이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인물이 바로 안나 아주머니다. 사실 그녀는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수많은 낙오자, 패배자, 외국인 등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치유하는 대지의 여신(가이아)같은 여성이다. 화자의 말대로 “치유의 능력을 지닌 대지의 여신”(73)이다. 그녀는 화자 및 하산과 더불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그녀의 국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한다. 서사의 전개상 안나는 외국인인 하산과 야모스에 대한 소개에 뒤이어 등장한다. 이런 처리는 안나라는 이국식 이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녀를 또 다른 외국인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한다. 작품을 상당 부분 읽어갈 때까지도 이런 인식은 그대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이에겐 그녀가 기본적인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해 부족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다. 또한 “이따금 사랑스럽고 대부분 저주스러운 안나 아주머니는 하산 아저씨와 야모스 아저씨는 물론 나조차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속담들을 섞어서 이야기했다”(8)는 화자의 언급을 따라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녀를 한국에 눌러 앉은 지 오랜 외국인 여성으로 짐작하게 만든다.

심지어 나중에 알게 되는 그녀의 상처 또한 그녀를 외국인 여성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로 도망 와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는 안나의 이력은 영락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적인 안나 아주머니. 안나 아주머니는 변신에도 능했다. ... 그러니까 아무도 안나 아주머니의 진짜 고향을 몰랐다. 본명도 마찬가지로였다”(39)는 화자의 언급은

36) 박산향, 「『이슬람 정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53쪽.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식당 문을 닫기에 앞서 “한 시간을 끄꿇대다 찾아낸 말”(157)이 ‘금일휴업’이라는 단어라는 화자의 설명은 그녀가 이주민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 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한국 여성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는 안나라는 이름이 그녀가 감명을 받은 책인 『안네의 일기』를 ‘안내양의 일기’ 잘못 알아들은 데서 얻게 된 이름이고, 그녀가 예전에 버스 안내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적어도 작중 배경인 1980년대 한국 사회에 외국인 버스 안내원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녀의 출신이 드러나는 것은 충남 식당을 하루 휴업하고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난 그녀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를 통해서이다.

내 어릴 적 고향 집이었지 닭도 없는 낡은 초가집이었다. 그래도 앞마당에선 꽃이 피고 강아지들이 뛰놀았지. 닭도 있고 오리도 있었다. ... 그 집에서 칠남매가 자랐다. 언니 오빠가 둘씩 있었고 내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지. 큰언니는 이웃마을 후취로 들어갔다가 폐병에 걸려 죽었고, 손위 오라비 하나는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영영 살아 나오지 못했다. 목숨들이 동백꽃처럼 졌다. (161)

여기서 그려지는 시골 마을은 영락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은 정육점 안에서가 아니라면 하산 아저씨를 알은 체하지 않았다 정육점 문턱은 단순한 문턱이 아니라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나누는 경계인 셈이다. **오로지 안나 이주머니만이** 하산 아저씨 그리고 야모스 아저씨를 남들과 똑같이 대했다”(인용자 강조, 76)는 화자의 언급에서 그녀는 이방인인 하산과 야모스를 차별하지 않은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담당했던 대지의 여신이자 공동체의 치유자 역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그녀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잠든 안나의 얼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교훈이다.

안나 아주머니의 잠든 얼굴은 기이했다 영락없이 전형적인 한국 여인으로 여겨지다가도 중국계나 일본계 혹은 베트남계나 인도네시아계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히스패닉계라 해도 좋았고 플라토 혹은 삼보라 해도 좋았다. 종내는 안나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가 모호해졌고 인간이란 이처럼 애초에 혼혈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산 아저씨와 야모스 아저씨도 그랬다. (159)

이렇게 보면 『이슬람 정육점』은 가족이란 “정서적 유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는 이남정의 해석<sup>37)</sup>은 설득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풍 장면에는 바흐찐의 카니발 이론이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미림은 이를 “이 소설의 소풍장면은 전민 중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sup>38)</sup> 시아버지를 통해 남편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은 안나는 충남식당을 하루 휴무하고 이웃들과 함께 소풍을 떠난다.

바흐찐은 카니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민중이 자신을 주인으로, 오직 주인으로(카니발에는 손님이나 구경꾼이 없으며 모두가 참여자이고 모두가 주인이다)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카니발의 참여자들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 셋째, 여기서 어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니발의 참석자인 민중은 불빛으로 가득한 땅의 가장 유쾌한 주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란 오직 새 생명의 탄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생성과 시간의 유쾌한 이미지를 알기 때문이다.<sup>39)</sup>

과연 안나를 위시한 달동네 식구들은 이 소풍에서 누구도 손님이 아니다. 또한 안나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물론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피해 온 안나로서는 남편의 죽음을 딱히 슬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설사 폭력적이 아니고 다정다감한 남편이라 했더라도 그 죽음에 오래 연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나와 같은 민중들에게 죽음이란

37)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이』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149쪽.

38)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2쪽.

39) Mikhail Bakhtin, 이덕형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서울: 아카넷, 2001), 388쪽.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필연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려지는 산 동네의 소풍은 “괴이하기 짝이 없”는 모습<sup>40)</sup>으로 그려진다. 열 명의 승객이 짐간에 포개져서 덜컹대며 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코미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특히 하산 아저씨만 한 덩치의 돼지를 잡는 장면은 한 편의 영락없는 블랙 코미디이다. 돼지의 사지를 묶어서 운반하는 도중에 맹랑한 녀석이 돼지의 항문을 건드리는 바람에 몸부림을 치다가 풀려나서 자신을 괴롭힌 녀석을 쫓아가는 사단이 벌어진다.

반사된 빛이 투명하고 시리게 눈을 찔렀을 때 중력이 사라졌다. 대신 한 마리 광포한 괴물이 길바닥에서 몸부림을 쳤다. ... 맹랑한 녀석은 손에 쥔 가는 막대로 한두 번 돼지를 위협해보았지만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나의 궤변이었다. 방금 전까지도 네 다리를 묶어 각목에 대롱대롱 매달렸던 돼지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인간을 맹렬하게 뒤쫓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198-99)

마침내 고수머리 청년이 날뛰는 돼지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돼지를 잡기 위해 갑옷을박 끝에 전도사와 야모스가 나서 보지만 어찌해 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자 마침내 하산이 나서서 돼지를 잡아서 익숙한 손길로 부위별로 해체해서 잔치를 벌인다. “카니발은 감사나 진지한 어조, 명령, 허락 등에 얽매이지 않으며, 유쾌함과 바보짓의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신호로 열리는” 특징이 있는데, 위 인용대목에서 묘사된 상황은 이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up>41)</sup> “정육점과 식당은 부분으로 절단된 육체의 민중축제적인 카니발적 이미지를 지닌다”는 이미림의 지적<sup>42)</sup>은 이 장면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이 소풍 장면은 『완득이』의 절정에서 이웃이 함께 모여 나누는 식사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남정은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뭉쳐진 이웃 간의 연대는 『완득이』에서는 ‘공동의 식사’로, 『이슬람 정육점』에서는 ‘소풍’으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sup>43)</sup>

40)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이』와 손흥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158쪽.

41) Mikhail Bakhtin, 이덕형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384쪽.

42) 이미림,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502쪽.

43)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

### III. 결론

『이슬람 정육점』은 대표적인 다문화소설로 주목받아왔다. 다문화소설로서 본 작품이 거둔 문학적 성취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주제적 측면에서 본 작품은 터키인 참전 용사인 하산에게 입양된 고아 소년의 관점에서 온갖 주변인과 소수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을 세 가지의 주요 모티프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첫째는 본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그 다양한 차이를 넘어 하나로 묶어주는 흉터 내지 상처라는 모티프이다. 흉터는 본 작품의 세 주인공 격인 하산과 고아 소년과 안나 아주머니를 묶어주는 기제가 된다. 하산이 고아 소년을 입양하게 되는 주된 계기가 바로 소년이 지닌 자신과 비슷한 흉터 때문이었으며, 세상이 준 상처 때문에 난폭해진 고아 소년의 흉터를 처음으로 쓰다듬어 준 손길이 바로 흉터를 지닌 안나의 손이었다.(13-15) 자칫 원심적으로 흠어질 수 있는 소설의 서사를 하나로 묶어준 두 번째의 모티프는 언어이다. 말더듬이인 유정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없이 내뱉는 언어는 그 자체가 폭력임을 역설한다. 또한 본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발화되는 언어인 피진어를 구사하는 인물들로 중심언어와 권력언어를 전복하고 해체한다. 마지막으로 본 작품의 주요 모티프는 얼굴이다. 고아 소년의 스크랩북을 통해서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나아가 혈통을 통해 나와 타자를 구별하고 이를 근거로 타자를 차별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며,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인종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며, 이는 “우리가 곧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는 능력만을 지녔다”(222)고 주장한다.

『이슬람 정육점』은 이러한 모티프와 함께 호미 바바의 흉내내기 이론과 바흐진의 카니발 이론을 전용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전을 형상화한다. 참전용사의 집회에 참가하는 대머리 아저씨의 흉내내기가 국가가 개인을 호명해서 필요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그 폭력에 따른 공포와 고통은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

이』와 손흥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158쪽.

메커니즘을 폭로한다면, 의붓아버지의 예배 행위를 흉내내는 소년의 행위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연대와 하나됨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안나의 인종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만듦으로써 역설적으로 이웃에게 현대의 손길을 베푸는 데에 있어서 혈통이나 민족, 인종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어차피 나는 고향이 없었다. 그리워해야 할 원형의 풍경도 회귀를 꿈꾸게 하는 낯익은 사물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그러므로 어딜 가나 내겐 고향이고 모국이다. 누구 만나든 그가 바로 내 오랜 벗이고 가족이다.”(54)는 화자의 깨달음은 『이슬람 정육점』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은 세상이 준 상처로 인한 냉소와 원한에 차 있던 고아 소년이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상처로 인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안 가족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yhshin@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이슬람 정육점』 (*The Islamic Butchery*), 흉내내기(mimicry), 흉터(scar), 언어(language), 얼굴(face)

투고일: 2022.03.21 심사일: 2022.05.01 게재확정일: 2022.05.02

<국문초록>

## 다문화소설로서의 『이슬람 정육점』 연구

신 영 현

본 논문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이 다문화소설로서 이론 문학적 성취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슬람 정육점』은 세 가지 모티프를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비전을 형상화한다. 먼저 주인공들이 가진 상처와 흉터는 민족, 성, 계급, 인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통의 유대로 엮어 준다. 예컨대 터키인 참전용사인 하산이 고아 소년을 입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소년이 지닌 흉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주요 모티프는 언어에 대한 남다른 통찰이다. 말더듬이인 유정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함 있는 도구이며,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 없이 내뱉는 언어는 그 자체가 폭력임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고아 소년의 스크랩북을 통해서 저자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은 허상에 불과하며, 혈통에 기준해서 나와 타자를 구별하고 이를 근거로 타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기기만임을 지적한다. 또한 본 소설은 바바의 흉내내기 이론과 바흐찐의 카니발 이론을 전용해서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이와 같은 성취를 통하여 본 소설은 다문화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 A Study on *The Islamic Butchery* as a Multicultural Novel

Shin Younghun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The Islamic Butchery* by Hong-gyu Son as a multicultural novel. The novel embodies the vis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people overcome differences and live together by focusing on three main motifs. First, the wounds and scars of the protagonists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form a common solidarity despite their gender, class, and ethnic differences. For example, Hassan, a Turkish veteran, adopted a Korean orphan boy because of his scar. The second main motif is an extraordinary insight into the essence of language. Through the stuttering boy named Yoo-jung,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language we use is a defective tool that cannot convey our thoughts properly, and that the language spoken without consideration and empathy for other people is just a form of violence in itself. Finally, through the scrapbook of the orphan boy,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concept of a typical Korean face is only an illusion, and that it is self-deception to distinguish between us and them through bloodline and discriminate against them based on this. In addition, this novel effectively embodies the multicultural themes mentioned above by using Homi Bhabha's concept 'mimicry' and Mikhail Bakhtin's theory of 'carnival'. In these respects, this novel can be evaluated as opening a new horizon for Korean multicultural novels.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 최남건, 『2000년대 한국 다문화소설 연구-이주민 재현 양상과 문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4).
- Bakhtin, Mikhail, 이덕형 역,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서울: 아카넷, 2001).
- Barry, Brian,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Harvard UP, 2001).
- Bhabha, Homi,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2012).
- Faulkner, William, *As I Lay Dying* (Harmondsworth: Penguin, 1930).
- Kymlicka, Will, 장동진·황민혁·송경호·변영환 역,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울: 동명사, 2010).
- Taylor, Charles,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하누리, 2020).

### 2. 논문

- 강영훈, 「보호와 억압, 다문화주의의 두 얼굴—다문화소설에 나타난 민족공동체의 역설」, 『현대문학이론연구』, 62권(2015).
-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 계성, 「성장소설로 본 한국의 다문화 공간—『중국인 거리』, 『코끼리』, 『완득이』를 중심으로」, 『중국어언문화학연구』, 11권(2016).
- 곽경숙, 「『이슬람 정육점』을 통해 본 생태학적 다문화사회」, 『현대문학이론연구』, 58권(2014).
-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성」, 『한어문교육』, 27집(2012).
- \_\_\_\_\_, 「『이슬람 정육점』으로 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7권 3호(2016).
- 신승철, 「경계언어와 특이성 생산」, 『시대와 철학』, 22권 2호(2011).

- 엄숙희,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폭력 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65권(2020).
- 윤영옥, 「21세기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권 3호(2012).
- 이남정, 「한국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이웃의 재발견-김려령의 『완득이』와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1권(2021).
-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1권(2012).
- \_\_\_\_\_,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한민족어문학』, 64권(2013).
- 임지연, 「공감 개념의 확장과 다문화적 공감서사-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7권(2018).
-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단지 고찰: 지적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권 2호(2014).
- 조명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가·자본의 폭력과 윤리 효과 그리고 로컬의 위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9권(2014).

### 3. 웹사이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8179> (검색일: 2022.3.1).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0910141648131> (검색일: 2022.5.10).